

가로경관에 환경조형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culpture For Street Landscape Design
- Focusing on Teheran-Ro in Seoul -

주저자 : 정수진(Chung, Soojin)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공동저자 : 장영석(Jang, Young Suk),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1-3. 관련연구동향

2. 이론적 고찰

- 2-1. 가로경관과 가로환경디자인
- 2-2. 가로경관과 환경조형물의 관계
- 2-3. 제도적 현황

3. 사례조사 및 분석

- 3-1. 대상지 개요
- 3-2. 환경조형물의 현황분석
- 3-3. 환경조형물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4. 가로경관과 환경조형물의 관계분석

- 4-1. 기존의 문제점 재확인
- 4-2. 환경조형물의 형태와 입지형태와의 관계
- 4-3. 환경조형물과 가로경관의 상호관계

5. 결론

참고문헌

(要約)

본 연구는 환경조형물이 건축물을 위한 단순한 장식 이상의 것이며 공공성을 가진 미술 작품으로서 가로환경의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환경조형물은 설치장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시각적 대상으로 주변 환경과 장소적 맥락을 가지는 요소로 파악가능하다.

현장조사의 대상지는 강남의 중심적인 업무지역이며 대규모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테헤란로의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 구간의 가로변에 위치한 28개 환경조형물에 대해 전수조사 하였다. 이들 환경조형물과 가로경관의 상관관계에 따라 각각 건축물, 보행자, 조형물의 시점에서 분석하였으며, 가로 경관과의 상관성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조형물이 가로경관과 주변 장소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형물 주변에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변의 공간과 결합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환경조형물은 가로의 경관을 조절할 수 있는 요소로 환경 디자인의 수단으로 거시적 맥락에서 위치 및 설치방식, 재료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Environmental sculpture is not just a decoration for architecture. It is a work of art with public interest and one of the best ways to improve street landscape design. Place of installation is very important for environmental sculpture, because it has close relationship with its surroundings and regional context.

Field survey was performed on Teheran-Street, between Samsung station and Yeoksam station, central business district of Kang-Nam where lots of major buildings are located. All the 28 environmental sculptures facing Teheran-Street were examined.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sculpture and street landscape design was investigated by three different points of view; relationship with architecture, intimacy with pedestrian, and space defined by the environmental sculpture.

Environmental sculpture needs its own space and appropriate place to have beneficial influence on the sense of place. Environmental sculpture is important factor to control the quality of street landscape design. We should have macroscopic approach to determine place of installation, method and material of Environmental sculpture.

(Keyword)

Environmental sculpture, Street landscape Design, Sense of place.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조형물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조형작품이며, 생활공간 안에서 예술을 향유하도록 설치되었다. 환경조형물은 단순히 건축물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식품이 아니며, 도시의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로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환경조형물이 건물을 장식하는 미술 장식품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가로 환경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의 경우, 송파구청에서 발주하여 중앙 분리대 부분에 올림픽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¹⁾ 화성 동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도 개발과정에서 연차적으로 조각물을 설치하는 '조각비엔날레 거리'를 도시 마케팅의 수단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²⁾ 이렇듯 환경 조형물은 단순히 거리의 예술작품일 뿐만이 아니라 도시 공간, 가로 환경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환경조형물에 대한 연구는 조형물의 예술적 가치나 시각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거나, 제도적 운영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되어있다. 예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환경조형물이 개인 소장품과는 달리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면에서 전문가의 평가와 일반인의 선호도 평가가 상호 교차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공공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추진과정 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로 연구 결과가 반영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환경조형물이 도시 공간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환경과 어떤 상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어떤 장소적 의미를 갖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환경조형물이 환경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조경, 건축, 도시 등의 관련 분야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환경조형물은 조각물에 한정하여 다루도록 한다. 그 외에 가드레일, 블라드, 옥외광고물과 벤치 등과 같은 스트리트 퍼니처의 경우 디자인의 조형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그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대상지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삼성역에서 선릉역 사이 구간을 선정하였다. 본 구간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은 환경조형물들이 밀집하여 있으며 각종 금융 및 IT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하여 있으며, 1980년대부터의 다양한 환경조형물들의 입지현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2001년도부터 송파구청에서는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연차별로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부분에 공모를 통하여 조형물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2) 한국토지공사: 화성동탄지구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연구, (2002)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환경조형물에 관한 이론적 고찰, 그리고 항측도와 같은 지도자료, 그 외에 서울특별시 환경조형물 대장과 같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항측도 및 도면상에서 전체적인 가로의 형태와 도시의 구조를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조사 및 기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환경 조형물이 끼치는 경관적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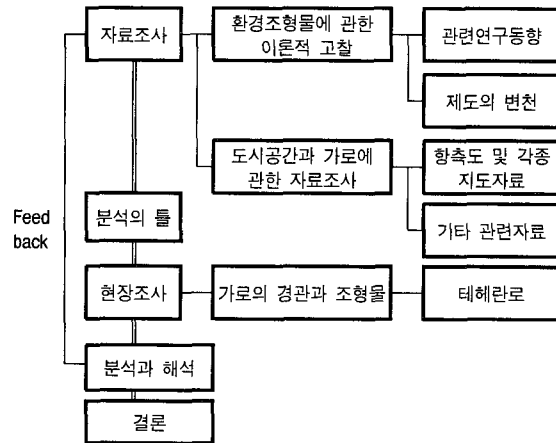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방법

1-3. 관련연구동향

현재 환경조형물, 혹은 공공미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환경조형물이 가지는 조각사적인 의의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 그리고 환경조형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환경일반에 관한 이론과 조각일반에 관한 이론을 연결하여 환경조형물의 특성을 정의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된 경향을 이루고 있다. 최병상(1990)³⁾은 미국의 환경조형물을 사례로 다루고, 환경조형물에 대한 미국, 일본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각가의 입장에서 환경조형물을 제작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 자질을 만들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재근(1999)⁴⁾의 연구는 환경조형물의 기원을 원시시대의 거대건축물에서부터 찾고 그 관점에서 현대의 공공미술에서 발생한 주요 논쟁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논쟁들의 대안으로서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법안에 의해 도시에 들어선 환경조형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재경(2001)⁵⁾은 공급을 민간에게만 일임하고 운영시스템 및 경직된 법체계를 문제점으로 들어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 작가의 선정방법 등의 개선과 아울러 연차적으로 공공미술계획을 도입하고 공공미술에 대한 시상제를 제안하고 있다. 황선일(2003)⁶⁾은 제도의 운용과 관리

3) 최병상: 환경조각, 서울: 미술공론사 (1990)

4) 이재근: 환경조형물의 변천과 비평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5) 김재경: 도시 외부공간 공공미술 설치 개선방안 연구 - 건축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책의 산출과 효과 등을 논하면서 정책중결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공의 개념을 주장하던 논의와는 다르게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민간부분의 개념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환경조형물의 대안을 제시하며 처방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김도경은 서울시 환경조형물의 설치 공간을 분석하되 사적 공간·공공 공간·전이 공간으로 그 설치된 공간형태를 구분하였으며, 조형물이 설치되는 공간을 보다 공공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⁶⁾ 허재연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대상지의 조건을 분석하여 건축물과 가장 적합한 조형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⁸⁾.

이와 같은 연구동향들을 살펴볼 때, 환경조형물의 공공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 운영하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작품의 수준의 검증 등이 일관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제도적 차원의 검토 및 환경조형물의 위치 선정, 그리고 건축물과의 조화 등의 차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로공간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환경조형물과 가로형태, 건축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방향 모색은 아직 미흡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로공간을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형물의 특성과 가로에서의 조형물 입지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형물 평가방안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가로경관과 가로환경디자인

2-1-1. 가로공간과 가로경관

가로 경관이란 가로공간이 그 공간을 방문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있는 시각적, 장소적 이미지이다.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장면을 중심으로 생성된 것이며, 장소적 이미지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한 기억을 공통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에게 생성되는 것이다.⁹⁾ 일반적으로 도시의 공적인 장소를 이야기 할 때에는 가로와 더불어 광장, 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로공간이란 가로와 가로변 건축물, 부대시설물의 상호관계 속에서 한정되는 공간이다. 주로 도시의 대표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이러한 가로를 중심으로 한 경관이다.

가로 환경디자인은 이러한 가로 경관을 결정짓는 각 요소들을 다루는 행위로서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이미지 요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건물 벽의 요철(凹凸)에서부터 바다,

6) 황선일: 건축물미술장식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3)

7) 김도경: 옥외 예술장식품 설치공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건축물 부설 예술장식품 심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4(2):99-116, (1996)

8) 허재연: 환경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연구 -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9) 단순 시각적 이미지와 장소적 이미지의 차이는 본 논문에서도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가에 의해서 구분되는 감정적 요소이다. 시각적 이미지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비교적 적게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며, 장소적 이미지란 그 특정 장소에 포함되는 정체성과 감정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벽, 장치물과 가로수, 간판, 사인, 기념물, 쓰레기통, 공중전화, 전봇대와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2-1-2. 환경조형물과 가로환경디자인

도시 경관을 조절하기 위한 환경디자인의 대표적인 수단은 도시의 물리적인 요소들을 이용하여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환경조형물은 특정 기능을 소지하지 않은 요소로, 도시의 경관의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환경조형물은 단순히 미적인 체험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 경관을 체험하는 시각적인 틀을 제공할뿐더러 주변 공간의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가로환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장면들을 제어하고, 그 장면 안에 다양한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2-2. 가로경관과 환경조형물의 관계

2-2-1. 주변 환경과 조형물의 관계

일차적으로 환경조형물이 입지한 환경 안에서 작품의 크기, 규모(scale), 형상, 형태, 형태, 재료, 매스(mass)와 밀도, 색채 등의 요소에 대해서 조사한다.¹⁰⁾ 아울러 주변 환경과 조형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가능하다.¹¹⁾

첫째는 조형물이 위치에 우선하는 경우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될 수 있는 독립적 성격의 조형물이다. 둘째는 조형물과 위치가 상호 적응하는 경우로 조형물이 설치 장소를 감안하여 제작되며, 설계가들도 조형물을 염두에 둔 설계 및 시공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설치위치가 우선하는 경우로 작가가 조형물과 함께, 조형물이 놓일 공간도 책임지고 조성하는 것이다. 넷째는 위치가 조형물을 결정하는 경우로, 조형물이 주위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 장소의 요소 및 정보에 따라 만들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환경조형물은 설치되는 장소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호관계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그 물리적인 형태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

2-2-2. 시각적 요인 분석 및 해석

경관은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각적인 현상이다. 즉 어떤 대상(경관 대상)을 인간(경관 주체)이 봄으로써 성립한다. 경관은 또한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이다. 즉 착시나 대상군이 일정하게 모여 보이는 현상¹²⁾과 같이 대상의 물리적인 사실과 다르게 체험되는 과정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그 과정에 인간의 좋고 싫음의 감정이 행위에 포함된다. 경관은 단순한 풍경만은 아니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

10) 인간의 망막에 비친 상이 뇌로 전달될 때, 색상, 움직임, 형태, 깊이 등으로 나뉘어 뇌의 해당부분으로 접수된다. 뇌는 이 이미지를 편집, 분석, 재결합하여 하나의 상으로 인식한다.

11) Wagenknecht-Harte, Kay : Site+Sculpture - the collaborative design pro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89), pp.41-48 재정리

12) 게슈탈트(gesutalt)란, 패턴, 형태, 전체형상의 개념으로 지각심리학의 용어이다. 특히 게슈탈트 시각원리에서는 사물을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경향, 총체로서 인식한다는 것이다.

경관을 파악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장면을 기본으로 한다. 장면 경관 속에는 구성요소와 공간적 관계가 존재한다. 첫째, 시점(視點, view point)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대상을 관찰하는 인간의 위치를 말한다. 둘째로 시점장(視點場, landscape setting here, view point field)이 존재하는데 이는 시점 근방의 공간상태 등을 의미한다. 셋째로 주대상(主對象, object)이 존재하고, 넷째로는 주대상 주변의 공간인 대상장(對象場, landscape setting there)이 있다¹³⁾.

경관을 통하여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시점과 시점장, 대상과 대상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시각적인 관계를 단순 물리적인 요소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2-2-3. 장소적 요인 분석 및 해석

장소의 세 가지 심리적 요인은 첫째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이해와 실존적 근거에 대한 표현을 시각화 하고, 둘째로 자신의 세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험된 의미를 모으는 것이며, 셋째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상징화하여 문화적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¹⁴⁾을 말한다. 즉, 장소란 실존과 통합된 것으로 공간과 같은 추상적인 위치가 아니라 사물들이 모여 환경의 성격이 결정되고 분위기가 주어지게 되는 총체적인 현상이다.

장소는 특별한 경관을 구성하며, 사회적 활동들의 무대를 제공한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풍기는 분위기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면, 그 장소를 중심으로 인간 및 인간집단이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¹⁵⁾. 이 두 가지는 실제로는 크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소성은 그러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정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일 수 있도록 형성된 성격을 말한다.

이러한 장소성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한 사회집단이 가지는 장소에 대한 감각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한 지역에 축적된 문화에 의해서 장소성은 강화되며 그 자신이 가지는 세계를 구체화 시키는 성격이다. 즉 모든 개별적인 지각과 개별 경험이 하나의 '주의'나 '배경'에 의하여 함께 규정되며 주변의 변화에 따라 지각자체가 변한다고 보았다. 즉 경험의 전체성이 하나의 세계의 전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이해는 전체 현상을 통찰하고 본질적인 구조를 밝히는 것을 통해 그 안에 내재한 가치관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해석이론에 근거하며 해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각 개별과 전체의 통합적인 사고를 통한 해석을 전제로 한다.

2-3. 제도적 현황

2-3-1. 1960~70년대

환경조형물이 등장하게 된 시기는 역사적 위인들의 동상이 서울 시내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이다. 이 시기에는 공공부문에서는 기념조각 건립사업 시행되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교육 기관이나 상업건물의 개별적인 자기선전용 미술작품이 산발적

13) 오사무, 시노하라, 배현미의 2인 역 :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서울, 대우출판사, (1999)

14) C. N. 솔츠 : 장소의 혼, 서울: 태림문화사, (1996), pp.17-23

15) 같은 책, p.26.

으로 나타났다. 1966년에 정계 및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된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가 발족되어 수많은 선열들의 동상이 서울 시내에 건립되었다.

2-3-2 법규의 제정과 변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제정되어 1973년부터 기금을 징수하게 되었으며, 198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조항'이 신설되었다. 이후 1984년 서울시조례를 지정하여 미술장식을 의무화하였다. 건축법에 미술장식이 권장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지방의 자치단체의 미술장식 조례제정이 확산되었으며, 1995년에는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어 설치대상을 보다 상세하고 차등이 있게 다루고 있다.¹⁶⁾ 이후 IMF등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건축규제사항으로 거론되었던 미술장식제도의 폐지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지다 2000년에 들어서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3-3. 제도상의 문제점

현재 공공미술 제도는 문예진흥법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분류에서 조형예술물과 환경조형물로 구분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지나치게 협소한 적용범위로 인해 사적인 예산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미술의 사유화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작가의 선정과 심의 등에 관한 운영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대상을 개별 건축물에 제한하기 때문에 결국 건축주가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작품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취향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가 미치는 환경조형물과 가로공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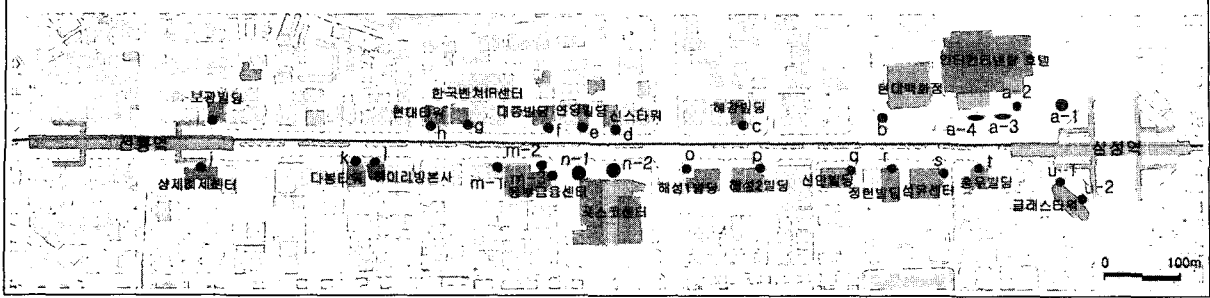
첫째, 대지내 공지라는 설치공간의 한계이다. 공공미술로서 환경조형물은 '공공공간에서 예술적 체험을 대중화시킬 수 있다'라는 목적에 의해 설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공간은 대지 내 공지 등 건축주의 소유 부지경계 내에 설치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둘째, 환경조형물들이 건축물에 부착된 장식이거나 건물주의 재력과비용으로 쓰이는 등의 수준문제이다. 특히 중규모 수준의 건축물일수록 환경조형물을 건축물의 입구나 화단을 장식하는 수준으로 사용된다.

셋째, 기존의 제도의 한계성과 작가의 수준문제이다. 환경조형물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며 도시공간 안에서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각가와 건축가, 조경가 등 도시환경과 관련된 사람들의 협력 하에 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도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 1995년도 문화예술시행령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가운데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광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 공동주택 중 연면적 10,000㎡이상으로 신축, 증축되는 건축물에 한하며, 설치비용은 설치대상의 용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하며, 설치형태는 사진, 회화, 조각 등의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 등의 환경조형물로 한정하였다.

17)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그림 2. 대상지 위치도



3. 사례조사 및 분석

3-1. 대상지개요

3-1-1. 개요

테헤란로는 서울 도심부(광화문)에서 반경 7~12km 떨어져 있는 서울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강남구, 반포대로, 올림픽 상징가로와 접속되는 거리이다. 도시설계지구로 선정되어 1984년 과업지침서가 나왔으며, 1997년 재정비설계 작업이 이뤄졌다. 강남의 중심가로로서,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 사옥과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부(富)'의 중심지라 일컬어진다. 삼성동의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글래스타워를 중심으로 한 삼성역 주변과 포스코센터 주변에 비교적 넓고 열린 오픈스페이스(open-space)가 형성되어 있다. 사례조사는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의 가로를 대상으로 하며, 테헤란로 방면으로 가로를 면하고 있는 28개 조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1-2. 토지이용 및 관련계획

테헤란로 주변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중심지 미관지구이며 1996년도 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¹⁸⁾ 관련 도면은 다음<그림3>와 같다. 도면을 살펴보면 공공조경 부문 및 공개공지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공조경 및 공개공지는 환경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제공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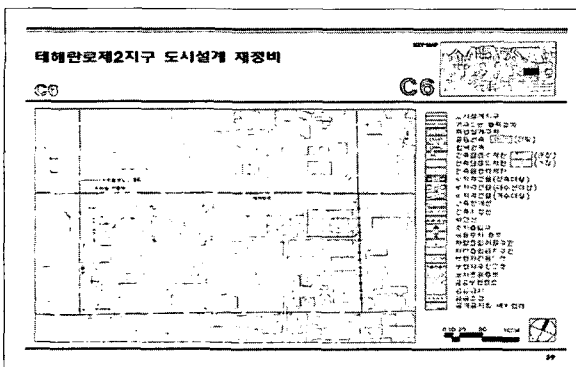


그림 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C6구간 (선릉역 주변구간)

18)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도시형태와 기능을 재정립하며, 양호한 미관을 확보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종 도시개발, 재개발을 실행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19) 테헤란로 도시설계: 서울시, (1984)

테헤란로 주변의 토지이용적 특성은 이러한 계획에 입각하여 높은 고층 빌딩과 건축물의 파사드들이 주로 반사특성을 가지는 패널들이 사용되어 서울의 업무중심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지역이다.

3-1-3. 도시 경관적 특성

테헤란로의 가로 단면은 폭 40m의 차도와 8m의 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가로와의 연결은 거의 완벽한 격자형이다. 주로 업무시설 위주의 토지이용을 보이고 있는 이곳은 강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무척 높은 고층건물들이 특징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보행환경은 공간의 여유, 가로수 식재, 조형물 등에 있어서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가로변 건물의 규모로 인해 다소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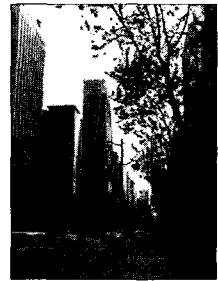


그림 4. 테헤란로의 가로전경

건축물 파사드(facade)를 구성하는 재료들은 대부분 채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환경조형물 및 기타 가로시설물 역시 브론즈나 석재를 주로 사용하여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주조색은 주로 푸른색을 중심으로 첨단 업무지역을 상징하는 색채이다.

지하철 역사주변 외 지역에서는 보행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으나 삼성역을 중심으로 한 코엑스(COEX), 현대백화점 지역 및 글래스타워 이면도로에는 인구유입활동이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3-2. 환경조형물의 현황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가로변에 입지한 환경조형물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은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우선적으로 조형물 자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재료와 형태를 조사하고, 그 다음으로는 조형물의 주변 공간, 즉 대상장(對象場)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환경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형식이 어떤 형태인가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데,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도록 하였다.

시점장의 분석을 위해서 장면경관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주변 공간과의 물리적인 관계와 장소적 맥락에 따른 현황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위치한 건축물, 가로수 및 바닥포장의 상태와 사람들의 행태를 포함한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표 1. 환경조형물의 현황분석

구분	제작 연대 및 작품사항	사진	재료	좌대	주변 환경	설치위치	구분	제작 연대 및 작품사항	사진	재료	좌대	주변 환경	설치위치
a-1	박석원, <적>, 1980년대		화강석	X	• 삼성역과 인접 • 지하철역으로 보행인구가 많음		l	미상		브론즈	O	• 후퇴된 1층부의 휴게공간과 어우러져 답답해 보이지는 않음	가로변 입지
a-2	강태성, <청산>, 1988		화강석	O	• 로비의 입구 강조 •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음	플랜터 위치	m-1	왕광현, <이동되어진 공간>, 2004		스텐 레스 스틸	X	• 거울반사효과로 인한 재미제공 • 휴게공간과 공간 구획효과	휴게 공간
a-3	미상 1980년대		화강석	X	• 사람들의 군상 상징 • 차량입구 상징	플랜터 위치	m-2	작자미상 (2000년대)		금속	X	• 주변공간에 비해 강렬한 효과 • 건물 파사드가 넓기 때문에 튀지는 않음	휴게 공간
a-4	미상 1980년대		현무암	X	• 하루방 형태 • 보행입구 상징	플랜터 위치	m-3	작자미상 (2000년대)		브론즈	X	• 소광장에 위치 • 가로변에서 쉽게 접근 불가능	전면부 공지
b	미상		화강석	X	• 현대백화점 공개공지에 위치 • 소공원형태 옥외공간의 구심점	조명시설 있음	n-1	작자미상 (1990년대 후반)		화강석	X	• 주변 건축물과 형태적 유사성 • 격자형태의 녹지와 어울림	플랜터 위치
c	김유선, <WORK-9 6-3>, 1996		화강석, 오석	X	• 광고탑과 지나치게 가까워 눈에 띄지 않음	플랜터 위치	n-2	스텔라, <꽃이 피는 구조물>		고철	O	• 많은 논란이 있던 조형물 • 수목으로 인해 차폐됨	가로변 입지
d	이일호, <사랑과 기쁨>, 1996		브론즈	O	• 신스타워 입구 • 커피숍 광고탑과 같이 위치하여 구분어려움	가로변 입지	o	작자미상		브론즈	O	• 보행자에게 인지되지 못함	플랜터 위치
e	문인수, <집울>		브론즈	O	• 수목과 플랜터로 인해 접근 불가능 • 주차공간 위치하여 가려짐	가로변 입지	p	최기원, <탄생>		브론즈	O	• 주변에 공간확보	가로변 입지
f	작자미상, 1991년도 제작		브론즈	O	• 가로 가각부에 입지했으나 지나치게 크고 어두움	가로변 입지	q	김왕현, <음악이 피어나는 세계>, 1996		화강석 문경석	O	• 건축물에 지나치게 가깝고 감상 할 수 있는 시점 포인트가 없음	가로변 입지
g	조성화, 1993		브론즈	O	• 주차장, 돌출 간판 등에 의해 가려져 잘 인지되지 않음	건물 이격 공간	r	작자미상, 1986		브론즈	O	• 주변 공간이 협소함	1층 후퇴부
h	금증기, <형, 심, 상>, 1998		브론즈	O	• 보행단절 • 주변 공간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큼	1층 후퇴부	s	김봉구, 숲속의 환상, 1992		브론즈	O	• 넓은 공지의 가각부에 위치 • 후면 휴식공간과 어울림	휴게 공간
i	작자미상		브론즈	O	• 건물 지하진입로 암시 • 형태나 색상이 지나치게 작고 어두움	플랜터 위치	t	이상현, 주라기의 철새, 1992		금속	O	• 건축물 벽면에 지나치게 가까움 • 수목과 플랜터와 밀착	1층 후퇴부
j	최기원, <위대한 탄생>		브론즈	O	• 녹지휴게공간 및 건물입구의 초점 역할	플랜터 위치	u-1	미상		금속	O	• 보존상태 불량	가로변 입지
k	강태성, 1992		화강석	X	• 인접한 주차장과 수목으로 인해 가려짐	가로변 입지	u-2	미상		브론즈	O	• 건축물 입구 상징	가로변 입지

3-3. 환경조형물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3-3-1. 환경조형물의 분류

• 재료

환경조형물의 제작재료는 크게 화강석, 오석 등 석조작품과 브론즈와 같은 금속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야외에 설치된다는 제작조건 상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각 재료의 특성 및 제작단가 때문에 화강석으로 제작된 작품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브론즈로 제작된 작품은 규모가 작은 편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상지 내에 조성된 조형물들은 주로 브론즈로 제작된 중규모의 조형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론즈 이외의 금속조각은 단 3점이었다. 화강석과 같은 석조작품들은 주로 주변에 휴게공간이 설치된 넓은 지역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고, 브론즈로 제작된 작품은 건물에 밀착되어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 좌대의 문제

조형물에 있어서 좌대의 유무는 놓여진 위치와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가지는가를 결정한다. 로잘린 클라우스(R. Krouss)는 좌대가 사라진 것을 조각의 영역의 확장으로 보았을 정도²⁰⁾로 좌대는 조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 좌대의 유무는 조각물이 주변 환경을 얼마만큼 고려하여 제작하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좌대가 없는 작품보다는 좌대가 설치된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테헤란로에 적용된 도시설계에 의해 휴게공간과 같이 배치된 경우도 나타났다. 좌대를 가진 경우에는 1층 건물 후퇴부에 설치되거나 건물 입구에 설치되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반면 좌대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에 휴게공간이 있거나 플랜터 안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 제작 연도별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조형물, 혹은 작품명패가 유실된 조형물이 많아 정확한 경향성을 추출할 수는 없으나, 건축물 준공 연대와 견주어 대략적인 연대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1990년대까지의 작업은 브론즈로 제작된 중규모인 경우가 많으며, 그 이후로 갈수록 작품의 소재가 다양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3-3-2. 대상장의 형태에 따른 분류

건물과의 물리적 관계는 가로에서의 환경조형물이 갖는 시각적 특징 및 물리적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과의 직접적인 거리를 중심으로 환경조형물의 주변의 공간형태를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공간은 시점을 중심으로 볼 때 대상장에 해당하며, 대상인 환경조형물의 배경 및 설치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밀착형

건축물 벽면에 거의 붙어 있듯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물 파사드의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20) 클라우스는 그의 저서 '조각 영역의 확장'에서 좌대는 조각이 장소적 맥락을 무시하고 독립적 조형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으로 보았다. 조각에서 좌대가 사라진 것은 조각이 환경예술이란 이름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는 증거로 파악하였다.

그 형태 역시 건축물의 외관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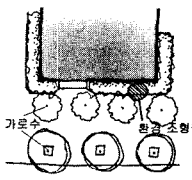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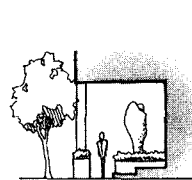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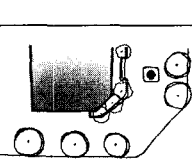
• 아케이드형

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 중 보행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건물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성된 아케이드 내부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은 강하게 위요(圍繞, surround)된 내부공간으로서의 느낌을 준다. 따라서 조형물 역시 보행자를 위한 통행과 휴식의 장소인 아케이드에서 적합한 규모와 형태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 이격형

환경조형물이 건축물과 상당한 간격이로 이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조형물은 건축물과의 관계보다는 그 조형물이 점유하고 있는 가로 상에서의 입지에 적합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 환경조형물 대상장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형태
밀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에 밀착되어 있는 형태 • 주로 건물을 장식하는 기능 • 수목, 주차공간 등으로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음 	c, d, e, f, g, k, o, t, q, u-2
아케이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퇴되어 있는(set back) 1층부에 위치한 형태 • 조형물의 관리와 감상을 위한 주위집중에 용이함 • 주어진 공간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되어야 함 	h, j, l, r
이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과 다소 떨어진 위치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형태 • 주로 건물에 부속된 옥외 휴식공간에 조성된 경우 	a-1, a-2, a-3, a-4, b, i, m-1, m-2, m-3, m-4, n-1, n-2, s, u-1, p

3-4-2. 시점장의 형태에 따른 분류

미술관이나 기타 갤러리에 전시되는 조형물의 경우 작가가 의도한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감상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로공간에 조성된 환경조형물의 경우 작품 자체보다는 주변의 공간 환경과 보행자 등 가로공간의 이용자 행태에 의해 관람 조건이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입지형태를 보행자와의 관계를 기준, 즉 보행자의 시점 및 그 주변의 형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전시형

이 경우 환경조형물과 보행자와의 관계는 관람자와 작품의 관계로 한정된다. 주로 대형 환경조형물의 경우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별도의 좌대나 보호대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의 관람이 불가능한 거대한 조형물의 경우 전시형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형태의 대형 환경조형물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감상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 근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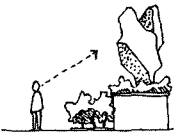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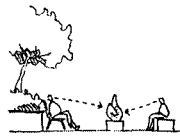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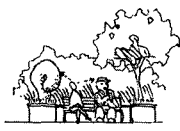
대상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주로 플랜터 등을 포함한 휴식공간에 조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경조형물은 관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를 명확히 해 주어 보행자의 영역과 휴게공간의 영역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접촉형

근접형의 환경조형물이 갖고 있는 공간한정의 기능을 포함하며, 그 외에도 이용자들이 직접 만지거나 걸터앉을 수 있는 환경조형물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 환경조형물은 설치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행태가 더해짐으로써 그 내용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조형물의 형태와 위치, 이용자들의 활동이 상호작용하여 그 성격이 제대로 발현되는 것이다.

대상지에 나타는 접촉형 환경조형물은 엄밀히 말해서 접촉이 용이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설치상의 특성으로 인해 접촉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고 있지는 못하다. 미술작품으로서의 의미보다 공공성이 보다 강화된 이러한 형태의 환경조형물은 재료 및 설치 방법, 형태 등에 있어서 보다 안전성과 기능성 등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3. 시점장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형태
전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곳에 있거나 수목 등의 장치로 보호되어 바라보기만 하는 형태 주로 규모가 큰 조형물인 경우가 많음 	a-2, n-2, o
근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와 가까이 인접해 있거나 휴식 공간 근처에 위치하여 친근감이 높은 환경조형물 	a-3, a-4, c, d, e, f, g, i, j, k, l, p, q, r, s, t, u-2
접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가 직접 만지거나 걸터앉을 수 있는 환경조형물 	a-1, b, h, m-1, m-2, m-3, n-1, u-1

3-4-3. 장소성의 분석

환경조형물은 건물이나 보행자에 의한 수동적인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용자를 유도하고 활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즉 환경조형물 자체가 공간을 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본 연구 대상지에서 조사된 환경조형물과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의 입지를 분류할 수 있다.

• 독립형

주로 휴식처 등의 중심에 위치하는 환경조형물이 이러한 형태인 경우가 많다. 독립형 환경조형물이 반드시 어떤 원형이나 광장형 공간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경

조형물이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과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영역을 규정하게 될 경우 이러한 입지형태를 독립형이라고 할 수 있다.

• 부속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환경조형물은 건축물의 벽면에 밀착해 있거나 심지어 아케이드 형태로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의 독립형 공간을 한정하는 환경조형물 보다는 건축물에 부속된 형태로 조그만 영역이나 공간을 한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조형물은 그것의 감상이나 조형물 자체의 분위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상지에서는 건물의 벽면에 밀착되어 설치된 환경조형물이 이러한 환경적 고려 없이 방치되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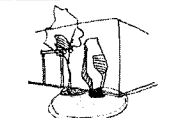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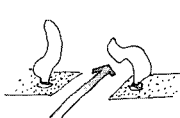
• 입구형

독립형과는 달리 어떤 공간의 중심이기 보다는 공간과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여 줌으로써 공간을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a-1의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상당한 정도의 공지가 있어 독립형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삼성역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테헤란로를 걷는 보행공간과 인터컨티넨탈 호텔 측면의 공지에 조성된 휴게공간을 구분하는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게이트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두 영역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입구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

m-1역시 앞쪽의 보행공간과 뒤쪽에 조성된 휴게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이 강하다. 이 밖에 아래의 형태에서 f, i, j, k, l, o, p, u-2 등은 건물의 지하 및 1층 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어 입구형과 부속형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이다.

표 4. 설치장소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형태
독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조형물을 중심으로 독립된 영역을 한정하는 경우 소공원이나 광장형의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함 	b, m-2, m-3, n-1, n-2, s, u-1
부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에 부속한 일부 공간을 한정해 주거나 벽면의 일부로만 존재하는 경우 	a-2, c, d, e, g, h, q, r, t
입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입구, 혹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진입을 표시하는 경우 즉 영역의 경계로서의 역할도 하게 됨 	a-1, a-3, a-4, f, i, j, k, l, m-1, o, p, u-2

4. 가로경관과 환경조형물의 관계분석

4-1. 기존의 문제점 재확인

4-1-1. 환경조형물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

대상지는 도시설계 구역으로 선정되어 환경조형물이나, 가로 시설물에 대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지침이 내려져 있다. 하지만 비교적 고층 빌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환경조형물의 설치의 기본목적과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조형물을 기본적으로 건물을 장식하는 부속품이나, 법규적 제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건축주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공공성에 대한 인식, 환경조형물의 설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거시적인 이익에 대한 인식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4-1-2. 제도적 측면

환경조형물의 설치에 있어서 조형물 자체의 미적 수준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조형물의 위치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환경조형물의 입지를 대지내 공지로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그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 조형물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건물에 인접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²¹⁾

4-1-3. 조형물 선정 및 관리의 문제

본 대상지 내의 조형물을 조사한 결과 조형물의 형태와 재료, 종류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작품, 같은 작가의 작품이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작가나 작품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줄 의사가 없거나, 혹은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4-2. 환경조형물의 형태와 입지특성

3장에서 조사한 3가지 조사기준을 교차시킴으로써 환경조형물과 입지특성을 다음의 <표5>와 같이 나타냈다. 대부분의 기준은 '보행자와의 관계', 즉 시점장 중심으로 구분하여, 가로경관과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다. 가로경관 및 장소성은 보행자, 즉 관찰자의 심리적 요인이 중심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4-2-1. 전시형 환경조형물의 입지특성

전시형 작품들은 건축물과의 거리나 작품이 한정하는 공간과는 무관하게 작품 자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3가지의 전시형 환경조형물을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보행자의 관람 위치를 적당한 거리로 통제하는 독립좌대 및 플랜터의 설치이다. 포스코센터 앞의 대형 조형물(n-2)의 경우는 좌대보다 작품 자체의 규모에 의해

보행자들을 일정 거리 이상으로 물러나게 만든다.

4-2-2. 근접형 환경조형물의 입지특성

본 대상지의 작품들 중에는 적당한 정도의 보행자 접근을 허용하는 근접형 조형물이 가장 많다. 이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한정하기 보다는 부속형이나 입구형과 같이 건축물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과의 관계도 밀착형이나 아케이드형과 같이 건물과 매우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행자들은 조형물 자체가 독자적으로 한정하는 영역보다는 건축물의 영역 일부를 통과하거나 잠시 머물면서 조형물을 감상하게 된다. 또 이러한 조형물들은 브론즈로 제작된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독립좌대 위에 설치되어 있다. 즉 보행자와의 거리로 볼 때 근접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기능에 있어서 바라보는 작품으로서의 측면이 강하여 성격상 접촉형보다는 전시형에 가까운 근접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테헤란로 일대의 조형물들은 아직까지 주로 건축물을 '장식'하는 개념으로 조성되거나 그러한 기능에 충실한 경우가 많다.

표 5. 환경조형물의 형태와 입지형태간의 상관관계

형태구분		조형물	설치형태	재료			
전시형	밀착형	입구형	o	플랜터	브론즈		
		이격형	부속형	a-2	플랜터	석조	
	독립형		n-2	독립좌대	금속		
근접형	밀착형	부속형	c	플랜터	석조		
			d	독립좌대	브론즈		
			e	독립좌대	브론즈		
			g	독립좌대	브론즈		
			q	독립좌대	석조		
			t	독립좌대	금속		
	이격형	입구형	f	독립좌대	브론즈		
			k	좌대없음	석조		
			u-2	독립좌대	브론즈		
			아케이드형	부속형	r	독립좌대	브론즈
				입구형	j	플랜터	브론즈
			l		독립좌대	브론즈	
이격형	독립형	s	독립좌대	브론즈			
		입구형	a-3	플랜터	석조		
			a-4	플랜터	석조		
			i	플랜터	석조		
			p	독립좌대	브론즈		
		접촉형	아케이드형	부속형	h	독립좌대	브론즈
이격형	독립형				b	좌대없음	석조
			m-2	좌대없음	금속		
			m-3	좌대없음	브론즈		
			n-1	좌대없음	석조		
			u-1	좌대	금속		
			입구형	a-1	좌대없음	석조	
m-1	좌대없음			금속			

21)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미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제도적인 장치로는 단순히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이 아닌 공공성을 가진 환경조형물에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재단의 설립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4-2-3. 접촉형 환경조형물과 입지형태의 상관관계

접촉형의 환경조형물은 대부분 건축물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격형이거나, 건물에 인접하더라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아케이드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접촉형의 조형물이 한정하는 영역은 대부분 독립형이거나 영역과 영역을 구분하는 입구형으로 입지한다. 결과적으로 접촉형의 환경조형물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조형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접촉형의 환경조형물은 근접형의 환경조형물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이며 전시정보다는 작다. 또 좌대가 없이 보도 포장과 같은 높이에 그대로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행자들의 접근이 보다 용이해진다. 특히 현대백화점 옆에 설치된 작품(b)의 경우에서처럼 조형물 주변에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거나 대지 내 공지의 휴게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설치된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보행자의 접촉을 유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변 공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조형물을 위한 일정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휴게공간이나 쉼터 등과 같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환경조형물과 가로경관의 상호관계

4-3-1. 배경으로서의 설치장소와 주변 환경

환경조형물은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공간을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아래의 그림에서 가장 좌측 사진은 조형물의 형태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모습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가로공간에서 조형물은 <그림5>의 가운데와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주변 환경과 함께 인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림 5. 상제리제 빌딩 앞의 조형물이 인지되는 여러 상황

따라서 작품을 감상하는 입장에서도 같은 작품이라도 경험의 측면에서 다를 뿐더러, 주변 공간과의 관계에 따라 작품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것은 환경조형물이 실제로 가로경관을 체험하는 데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상장 주변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테헤란로에 입지한 환경조형물들은 주로 건물과 떨어진 독립적 형태를 가지거나 건물에 지나치게 가까운 밀착형태를 가진다. 이 두 가지 경우 설치 장소가 직접적으로 환경조형물이 체험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지는 않으나 건축물과 적절한 규모면에서의 조화가 감안된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이격형의 인지가 밀착정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3-2. 보행자 및 시점의 문제

가로공간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림5>의 조형물은 가장 오른쪽 사진과 같이 거리의 모습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것

이며 수직적인 형태와 부분적인 금빛과 같은 대략의 이미지로 기억될 것이다. 반면에 가운데 그림과 같이 환경조형물을 포함한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휴식공간에서 랜드마크적인 장치물로서의 조형물과 그 조형물이 이루는 포켓공간의 이미지가 기억될 것이다.

보행자의 관점, 즉 시점에서의 경험은 조형물의 형태, 재료뿐만 아니라 조형물 주변의 대상장을 포함한 공간적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과 경험의 누적이 한꺼번에 누적되어 장소적인 경험을 구축한다. 즉, 단순히 시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보행자의 경험을 유도하는 환경조형물이 가로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상지 분석결과를 볼 때, 환경조형물의 입지는 건축물과 어느 정도 떨어져 보행자의 시점에 가깝게 다가오는 형태, 경험을 촉발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형태가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3. 가로경관과 장소성의 상호영향

조형물이 전시관 내부의 미술작품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는 환경조형물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의 오픈스페이스에서 한정하는 영역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공간의 형태는 건물 및 가로와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형물의 형태가 여기에 영향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보행자와 환경조형물의 관계, 즉 이용자의 행태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장의 형태와 시점장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환경조형물 주변에 그 조형물이 감상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경험할 수 있는 거리가 요구된다고 본다면, 환경조형물이 주변 환경의 맥락과 연관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나, 주변에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때, 그 주변지역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대상지에서는 b, m-1, m-2와 같은 환경조형물이 바로 그러한 형태에 해당한다. 즉 주변에 삼성역과 같은 주요 교통시설, 현대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은 보행자를 많이 발생시키며 접근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장소의 경험의 양을 늘리고, 주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환경조형물은 이러한 다양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치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이 지역의 장소성은 강화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의 활동을 촉발하여 점차적으로 지역의 이미지, 즉 가로경관의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²²⁾. 이러한 가로경관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정체성을 강화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게 된다. 즉 테헤란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다루는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22) 여기에서의 가로경관은 단순히 대상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맥락에서 대상과 보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는 장면경관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 및 디자인에서 완성된 제품 위주의 경관을 다루는 대신에 장소성은 사람과의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상호관계를 중시여기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5. 결론

환경조형물은 가로공간을 장소화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경관을 구성하고 도시 전체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테헤란로에 설치된 환경조형물들은 주로 보행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근접형인 형태가 많았으나 건축물의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밀착형이거나 아케이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건축물의 공간에 부속된 부속형이 경우가 많아 실제로 공공성을 많이 획득하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 이러한 조형물들은 주로 좌대를 가지고 있는 브론즈로 제작된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가로의 보행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기 쉬운 접촉형의 조형물들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떨어진 공간에 조형물이 독립적으로 공간을 한정하고 있는 형태가 많았으며, 이러한 조형물들은 좌대가 없는 형태가 많았다.

도시환경 속에서 도시의 구조와 위치적 특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된 환경조형물은 위치감, 방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그 도시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경조형물은 장소성을 높여 그 장소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하며, 주위의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나 건물의 기능적 특성과 결합하여 공간의 효율적 활용, 전시, 선전, 교육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면에서 환경디자인의 수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조형물은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며, 주변 환경의 약점을 감추어주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감상뿐만 아니라 휴식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며, 건축 파사드와 가로의 보행자와의 관계를 보완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환경조형물이 단순히 가로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시적인 가로경관의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즉 시점장과 대상장에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점과 대상간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환경조형물이 가로경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강남의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조형물이 가지는 모든 영향력을 평가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추후 다른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설득력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Jacobs, A. B.: Great Street, MIT Press; Reprint edition, (1995)
- Lynch, K., 황성수 역 : 도시의 상(The Image of The City), 녹원출판사, (1985)
- Schultz, C. N., : 장소의 혼(Genius Loci), 태림문화사, (1996)
- 篠原 修, 배현미의 2인 역 :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대우출판사, (1999)
- 芦原義信, 이명호 역 : 續·거리의 미학, 태림문화사, (1986)
- 김도경 : 옥외 예술장식품 설치공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건축물 부속 예술장식품 심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4호(2), (1996), pp. 99-116.
- 김재경 : 도시 외부공간 공공미술 설치 개선방안 연구 - 건축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의 거리 ; 계획과 실제, (1996)
- 이재근: 환경조형물의 변천과 비평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지연: 서울특별시 환경조각에 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석사학위논문, (1997)
- 최병상: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1990)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1997)
- 한국토지공사 : 화성동탄지구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연구, (2002)
- 허재연: 환경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연구 -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황선일: 건축물미술장식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3)
- <http://www.artinpublic.org>
- <http://www.visitseoul.net>